

서울대공원 곤충관의 새단장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운영실태

조신일, 김선흥, 김현열, 한인규, 이원효, 배연재¹

서울대공원, ¹서울여자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환경생명과학부

금년 봄 리모델링을 마친 서울대공원 곤충관은 자연의 신비로움과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는 자연체험의 장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생명의 소중함과 생태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자 곤충을 소재로 1985년 국내 최초의 곤충관으로 설립하였다.

최근 전시시설 노후화로 인한 관람효과의 저조, 시대적으로 뒤떨어진 낙후된 전시기법, 그리고 시민들의 과학지식의 향상과 문화적 갈구 등으로 기존 곤충관의 리모델링이 절실히 요구되어 1999년 소생물서식권으로 조성한 나비생태관을 시작으로 2005년 3월 자연친화적인 나비생태원이 준공되기까지 약 7년 동안 곤충체험관, 나비생태관, 나비생태원 등 3개의 커다란 전시공간으로 서울대공원 곤충관을 새단장하였다.

21세기에 바람직한 곤충관은 곤충의 생태를 최대한 고려하여 작은 생물이 살 수 있는 최소공간으로 조성한 생태형 전시공간과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 등 IT의 발달로 손수 움직여 보며 직접 체험이 가능한 체험형 전시공간이 요구되어 친환경적인 소생물서식공간과 행동기작의 이해와 학습이 가능한 체험공간으로 연출하여 곤충의 신세계를 흥미롭고 재미있게 즐기며 이해할 수 있도록 ECO-IT의 융합을 통해 FUSION INSECTARIA로 조성하였다.